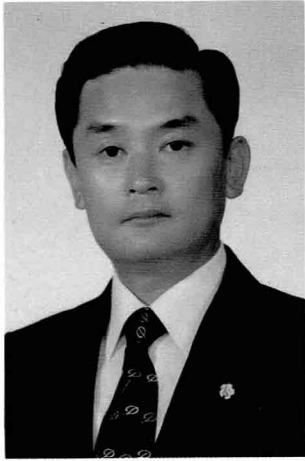


# 自主國防力 건설은 시대적 사명



安秉吉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  
이제는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자주국방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탄생해야  
하겠습니다.”

**脫** 냉전과 소련의 몰락 등 東西 화해 분위기로 우리 주변에서는 안보의식의 해이와 국방비 감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부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技術霸權主義로 치달아 선진국의 기술 보호장벽은 점점 높아가고 있어 뒤늦게 방위산업을 시작한 우리에게겐 한층 어려움이 加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력 건설」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개인의 영예로 생각함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70년대 초에 胎動하여 8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병기의 국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정밀기계공업 및 중화학공업 등 국내 민수산업발전을 先導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조달 물량의 감소로 인하여 대부분의 방산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東西 화해 무드에 편승한 국민 안보의식의 해이는 防産 종사자들의 사기마저 저하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北韓은 김일성 사망이후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對南赤化野慾을 버리지 않고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과 기습공격 전력의 전진 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개량사업을 꾸준히 계속하고 있고, 화학·생물학 무기는 물론 재래식 원자폭탄의 제조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위협은 비단 北韓에만 국한 되지는 않습니다.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의 안보는 미·일·중·러의 세계 군사 최강 4개국의 이해에 따라 위협수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최근 獨島문제는 오늘의 우방국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적국도 될 수 있다는 국제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주고 있으며, 민족의 생존을 위해 「自主國防力 건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장차전에 대비한 고도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위주로 한 방위산업의 재도약은 민족의 생존과 긍지를 지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통일 이후를 대비한 자주국방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다시 탄생해야 하겠습니다.

국내방위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기여해온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本會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업계와 관계 기관간의 교량역할에 盡力하여, 방산업계의 애로 및 문제점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방산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와 함께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邁進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